

8 인터뷰-2018 서울신문 신춘문에 시 부문 당선자 박은지 동문(국어국문학 04)



우리학교 성찰과표현 수업 강사이자 2018년 서울신문 신춘문에 시 부문 당선자인 박은지 동문을 만났다.

(사진=장비슬 기자)

“시 창작, 타인을 바라보는 시간 ‘작은 목소리’는 시인의 역할”

유경민 기자 gmn0313@khu.ac.kr
이지수 기자 ssu1404@khu.ac.kr

소외된 삶에 주목하고 그것에 명료한 표현을 부여함으로써 시명을 다하는 것이 문학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문은 경희의 젊은 문학가들로부터 삶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짚어보려 합니다. 2018년 서울신문 신춘문에 시 부문 당선자이자 우리학교에서 성찰과 표현 강의를 하고 있는 박은지 동문(국어국문학 04)을 만나 ‘타인을 향해 열려있는 시 창작’에 관해 들어봤습니다.

경희와 함께한 시 창작

대학 입학 전 시와 소설을 즐겨 읽는 편이 아니었던 박 동문이 시를 쓰게 된 데는 선배들의 영향이 컸다고 말합니다. 개그맨처럼 웃긴 선배들을 따라 선배들이 공통으로 하고 있던 시 창작 학회에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녀는 “개그맨 같은 선배들이 시를 되게 진지하게 읽고 좋아했다”며 “선배들의 추천

으로 시집을 사 읽으며 1학년 말부터 제대로 써봐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후 시집과 계간지를 읽으며 시 쓰기를 계속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2004년부터 대학원을 지나 강의하는 지금까지, 우리학교에 머무는 그녀에게 캠퍼스는 시 영감의 원천이 됐습니다. 박 동문은 “캠퍼스의 많은 돌, 험퍽고개와 같은 언덕, 나무, 꽃의 세세한 변화를 만끽하면서 아름다움을 느꼈고 그게 시로 이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시집 <여름상설공연>에 ‘돌이 꿈과 현실을 매개하는 존재로 많이 등장하는 이유 역시 캠퍼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전합니다.

타인을 향해 열려있는 시 창작

그녀에게 창작의 시간은 타인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시 창작은 타인에 대한 생각을 바탕으로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 나아가려는 움직임이 만들어집니다. 박 동문은 “타인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자

연스러운 일이라 생각한다”면서도 “타인에 대한 이해는 한순간 이뤄졌다가도 금방 무너져버리기 쉬운 것이지만 그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와 타인은 분리될 수 없고, 이미 내 안에 여러 타인이 들어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전합니다.

최근 시집인 <여름상설공연>에서 전하고 싶었던 하나의 이야기도 ‘타인과의 마주침, 그 찰나의 아름다움’입니다. 특히 그녀가 좋아하는 여름의 순간을 또 하나의 타인인 독자들과 공유하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박 동문은 “개인적으로 여름의 덥고 땀이 뻘뻘 나는 치열한 순간, 그들의 시원한 바람을 느끼는 순간을 좋아한다”며 “이 시집을 통해 내가 좋아하는 여름의 순간을 간직하고 사람들이 언제든지 와서 보고 싶으면 한다”고 전합니다.

애정을 갖고 바라보기

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는 박 동문의 ‘타인에 대한 이해와 열림의 자

세’는 학생들을 향합니다. 성찰과 표현 수업을 진행하는 그녀는 학생들이 나에 대한 글쓰기를 하며 이뤄지는 스스로에 대한 탐구가 결국 자연스럽게 타인과 사회에 대한 탐구로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박 동문은 “성찰과 표현이라는 과목이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으려 노력하는 공간으로서의 대학의 역할을 시작하게 해주는 것 같다”며 “스스로에 관한 질문을 통해 나뿐만 아니라 타인과 사회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타인에 관한 관심은 그녀의 수업 진행방식에서도 드러납니다. 합평 시간에 그녀는 서로의 글이 가진 단점을 언급하기보다는 칭찬을 많이 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하나의 정답에 갇혀 있지 않고 질문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시를 쓰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조언과도 같습니다. 박 동문은 “합평하면 애써 타인의 단점을 찾아내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시를 쓰는 것이 고통스럽다”며 “고통보다 즐거움이 더 크고, 홀로 써야 하는 글쓰기가 가진 외로움을 칭찬 위주의 합평 공간이 해결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타인에 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진 그녀는 현대사회의 갈등이 심화되

고 있는 상황을 조금 다르게 바라봅니다. 과거 ‘잘 먹고 잘살자’는 하나의 명제 아래, 질문을 던질 여유가 없던 사회에서 탈피하려는 과도에 갈등이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박 동문은 “지금 젊은 세대들은 갈등하느라 힘들겠지만, 갈등 속에서 끊임없이 많은 질문이 나와 충돌하며 다양성이 존중된 사회를 만들어 나간다고 생각한다”며 “나를 돌보면서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진통하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갈등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려고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전합니다.

이러한 갈등의 지점을 사회에 다시금 말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문학입니다. 박 동문은 가장 자본의 힘을 덜 받는 영역이 문학이라 생각하며, 그렇기에 문학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마저도 획일화되는 이 시점에서 거대 자본이 관심 가지지 않아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작은 목소리를 말하는 것이 시인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타인에 대한 이해를 포기하고 담아놓지 않고 그들에게 애정을 가진 열림의 상태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합니다.